

2006년 3월 11일(토)

이 문서는 하나됨을 제안하는 그룹(이하 Unity Proposal Group)에서 지난 6개월간의 기도와 공부, 많은 조언과 회의를 통해 작성한, 전 세계의 교회 인도자들에게 제안하는 '하나됨을 위한 계획(a plan for united cooperation)'입니다. '질의와 응답' 파트는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Unity@chnets.net](mailto:Unity@chnets.net)입니다.

모든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 여러분의 멤버들과 논의하신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계획을 받아들일 것인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Unity@chnets.net](mailto:Unity@chnets.net)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4월 3일부터 이 '하나됨을 위한 계획'을 받아들인 교회들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3월 29일 수요일에 우리 운동의 하나됨과, 회개, 용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주시기를 모든 제자와 모든 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빛을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 5:16)

### 시작하는 말

이 문서는 1992년 이래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알려진 모든 교회들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더 굳게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05년 9월초, Seattle의 2005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의 조정자들로 구성된 포럼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 아홉 명의 형제들이 Unity Proposal Group을 성기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 협력과, 하나됨, 그리고 미션을 더욱 진전시킬 제안을 교회에 제출한다는 명확한 사명을 지니고 Seattle을 떠났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서 우리 아홉 명이 우선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에서의 경험과 리더십 역할을 한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넷은 장로와 목사로 섬겨왔습니다(Mike Fontenot, Sam Powell, Steve Staten, Bruce Williams). 셋은 미국인이 아닌 목사입니다(17년간 북유럽, 소련과 중동 지역에서 섬겨온 Andy Fleming과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사역해온 Phil Lam과 John Louis). 두 사람은 미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온 목사들입니다(중국에서 10년간 섬긴 Scott Green,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16년간 섬긴 Mike Taliaferro). 이 중 Andy Fleming과 Steve Staten 두 사람은 왕국 안에서 교사의 직분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25년 이상을 제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 6개월 동안 '하나됨을 위한 계획'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처음 8주간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제자들로부터 얻은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40개의 제의와 제안을 수집하여 검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제안해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우리 교제의 안팎에서 또 다른 조언과 제안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신실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문제들과 씨름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교회

운영(Church Government)에 관한 시각 : 교회 조직에 대한 다섯 가지 시각'과 같은 책들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우리만 교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이 문제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싸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도와 많은 제안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에 제출할,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들과 우리의 교제 안에서 감지된 필요들에 기반한 포괄적인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에 걸쳐 지속될 완벽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필요에 걸맞는 무언가를 써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제안으로서 이것은 각 지역 담당자에 의해 여러 가지 형식으로 200명이 넘는 목사, 장로, 교사, 행정관리자(Administrator)와 멤버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여섯 대륙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력과 지혜를 더해주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전 세계에 걸쳐 교회 인도자들이 부르는 곳마다 가서 셀 수 없이 많은 회의와 컨퍼런스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하는 데에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고, 전화해주고, 이 문서에 대한 반응과 첨언과 교정을 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임무의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인내해준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의 멤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력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해준 수천 명의 제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교제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 계획은 같은 역사와 같은 유업을 공유하고 있는 500여 교회들간의 하나됨을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함께 천국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 여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덧붙여, 처음에는 문서의 길이를 다소 짧게 하려 했으나, 완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충만함을 위해 이 정도 분량은 필요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우리는 우리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묘사하신 하나됨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미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우리의 하나됨과 미션에의 헌신에 함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됨과 미션에의 헌신에는 함께 하지만 이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로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또한 동시에 성경적인 원칙들에 대해 신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제가 신실하고 겸손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지 깨달아가야 합니다.

다음 사람들이 겸손한 감사의 마음으로 적습니다.

Mike Fontenot(장로/목사, Hampton Roads, VA)

Scott Green(목사, Seattle, WA)

Philip Lam(목사, Hong Kong, China)

John Louis(목사, Singapore)

Andy Fleming(중동 지역 미션 목사/교사, LA, CA)

Sam Powell(장로/목사, New York, NY)

Steve Staten(목사/교사, Chicago, IL)

Mike Taliaferro(목사, San Antonio, TX)

Bruce Williams(목사, Los Angeles, CA)

## 하나됨을 위한 계획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행이며,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 중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놀라운 교회의 가족들로 우리를 축복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와 문화와 인종으로부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확신이 담겨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최근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엡 4:12-13)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성숙한 사람이 되어』 마지막으로, 이 제안서에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제안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심사 숙고해야 할 일련의 사항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 겸손에 대한 부르심
- 건전하게 공유된 믿음에 대한 부르심
- 건강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부르심
- 지역 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부르심
- 효과적인 지역 리더십의 역학관계에 대한 부르심
- 전세계 교회를 강화시키는 데 대한 부르심
- 부흥에 대한 부르심; 확신, 성숙한 제자훈련, 그리고 위대한 사명에 대하여

### I.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벧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 3:26-27) 『[26]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특성들 가운데 주요한 것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 곧 겸손과 믿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겸손

어떠한 목적보다도 우리 모두가 겸손한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엡 4:1-3) 『[1]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2]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3]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우리들 각자는 “언제나 겸손”해지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말로 연합과 평안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롬 14, 15)

-우리가 심사숙고한 후에 말했거나 적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겸손함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 없이,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는 겸손함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 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할 수 있는 겸손함

-자신이 잘 알려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없다면, 어떠한 제안서도 결코 하나됨을 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겸손과 연합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창 11)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행 2)을 비교해보면, 그 연관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시날 평야”(후에 바빌로니아가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흠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여 이름을 사방에 떨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달리 하여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흠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하나됨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이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완전히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연합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합을 원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분열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후에 하나님이 이 시날 평야의 저주, 곧 불일치와 분열의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순절날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경손할 때 투명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손한 이들을 축복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동등한 사람들로 스스로를 인식했습니다. 어떠한 지위의 고하도 없이 다만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손한 태도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교회 운영 방침 때문입니까? 위대하고 큰 꿈들을 나누고, 긴 편지를 적고, 놀라운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이룬 놀라운 성취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도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에 대해 축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진정 의미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로 인해 “마음이 찢려”(행 2:37) 행동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전 2:2)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은 1세기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지금 역시 복음을 처음 듣게되는 모든 이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계획서는 절대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계획서에서 빼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 첨가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나, 약간 수정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글을 적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편지를 통해 우리 운동의 재건을 시작하시리라고 믿을 따름입니다. 수 백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수정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상담을 주고 받으며 우리는 가장 최선의 편지를 적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계획서가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거나 집단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최선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

교회라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연합을 이미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틀이나 요약된 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15:1-5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곧 복음에 기초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헌신된 제자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설교에서 언급되며, 에베소서 4:4-6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에 대한 주된 진술을 명백하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5-11, 디모데전서 3:16, 베드로전서 3:18-22와 같은 부분에서 그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사용하여 세례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고,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교육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편지를 적고, 신학적인 책을 작성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거나, 이단에 대한 반박을 하는 데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채로 수많은 신조와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진리는 의미있는 표현을 통해 전달되므로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학적인 반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와 응답'을 참고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모이면 모일 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공고한 연합을 꾀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유 1:3)을 신학적인 토대 위에 정교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하고, 캠퍼스 미니스트리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리 운동이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일 가운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중요도와 과정에 따라서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믿음에 대한 선언

(요 17:23)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르침과 협동의 이상적인 원리 덕분에 지금까지 이 여행을 잘 해왔습니다. 이러한 선언들은 우리를 역사상 가장 기준이 높은 본질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리스도에게 더 잘 붙어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공통된 영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징표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1.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근본적인 충성심은 천지만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이자 구세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에게,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행 2:22-36, 롬 8:12-28)

2. “우리가 갖는 확신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요 3:16, 요 12:47-48, 요일 2:5-6)

3.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이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말씀은 강렬하고, 힘있고, 효과적이고 도전적으로 쓰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자로부터 왔으므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딤후 4:13, 딤후 3:16-17, 4:1-5, 히 4:12-13)

#### **복음: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유월절에서부터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기, 곧 오순절이 오기까지 그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어린 양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시내 광야로 이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생각해봅시다. 출애굽기의 처음 스무 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일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 주님이자 그리스도로서 부활한 예수님의 목격자들이며 모든 사람들의 위해,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들었습니다.

4.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믿고 복종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구원해주시니다. (롬 2:7, 행 2:22-37, 엡 2:8-10, 골 2:12, 히 10:32-39, 약 1:12)

5.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임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세계의 모든 곳에 알리라는 위대한 명령에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임무를 부지런히 함으로써, 선한 행위를 하며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짐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HOPE와 그 외의 것들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한 집단적인 선의의 노력을



도와줌으로 우리의 동감하는 마음을 나타냄으로써 가엾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마 28:19-20, 행 10:37-38, 골 3:1-6, 눅 19:10, 갈 2:10, 약 1:27)

6.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서로 서로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동기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유발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고후 5:14-21, 요일 3:16, 눅 10:27)

#### **개인: 우리 각자는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기뻐하고 부르심을 경건히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7.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제자 훈련하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죄에 대해 명백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물을 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 20:31, 눅 14:25-33, 행 2:38-41, 롬 10:9, 딤후 3:3-5)

8.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의 결정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눅 9:23, 14:33, 롬 2:7, 갈 6:9)

9. 매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우리는, 세상과 세상적인 방식들로부터 구별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엡 1:1, 엡 2:1-4, 살전 4:3-8, 요일 2:15-17) 그리스도인의 열렬한 사랑과 결혼 관계가 성서에 정의된 “주님께 속한” 사람들과 함께 고결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후 6:14-7:1, 고전 7:39)

#### **교회 공동체: 교제 나눔과 강하게 함**

우리는 절대적인 용서의 약속을 이끄는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로서 그분과 한 몸으로 결속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해 꿈꾸고, 천국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속하게 되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10. 세례받은 제자들, 고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며, 우리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몸 된

교회의 생활에도 힘써 헌신 함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는 것,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사랑하고 선한행위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려고 하는 것,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행 2:42, 롬 12:10, 히 3:12-13; 10:24-25)

11.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다같이 빵을 뜯고 포도주를 마시는 신성한 의식으로 매주 성찬을 합니다. 1세기 제자들을 닮아가려는 교회로서, 우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에게 기꺼이 희생하고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우리 수입의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 2:42-47, 고전 10:17-34, 고전 9:7-14, 빌 4:14-19)

12. 우리는 자매들이 다른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훈련하는 중대한 사역의 역할을 위해 섬김에 있어서 교회가 여성을 지원하는(재정적) 것을 믿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모든 자매들이 형제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가치와 중요한 영향력을 인정 합니다. (고전 9:5, 딤후 2:3-4, 행 18:24-26, 롬 16:1-15)

13. 각 교회의 주요한 결정 사항은 각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결속을 추구하고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사이에 조언과 필요 사항들을 주고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 외부의 사람으로부터의 경건한 영향력을 요청하고, 주고,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합니다. (벧전 5:5)

14. 우리의 교회 안의 공동체와 형제간의 우애 외의 관계는 언제나 참되고 존경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결코 일부러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훈련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수의 목양 책임을 포함한 모범적인 리더십의 권한을 확정합니다. (벧전 2:17).

15. 성숙한 분쟁 해결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속하며 때로는 우리 공동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험담과 거짓 비방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고전 5:1-13, 6:1-8, 빌레몬)

## II. 방향의 수정과 전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헌신 된 채로 남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공개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따를 것임을 공표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아버지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주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의와 평안의 열매를 추구한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힘들었던 시간과 회복, 그에 대한 해결안들은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갈등의 해결과 조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우리 교회중의 한 큰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의 정체 현상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굳기 전에 교회의 문화에 대해 재고하고 재개발할 부러울 정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5년이 경과되었다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규모의 교회에도 해당하는 이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Unity Proposal Group을 임명한 것은 대다수의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대급부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전에 공부, 기도, 반성, 결정 그리고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안서안의 내용들이 지금으로는 최선으로 보이나 앞으로 나아감과 배움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사역의 하나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가장 잘 기능하고 있는 우리의 여정의 단계로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과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반성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대항해 서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서있는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규정해야 하는 매우 독특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몇몇 움직임들은, 급격하게 독립적이 되려는 현재의 경향을 수정하려는 것과 회중의 목적들에 대한 모호성을 극복하는 것,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더욱 강한 연대를 맺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각 지역의 팀 리더쉽의 역학구조를 개선하려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 **교회의 독립을 금하고 상호의존의 관계를 형성하기**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교회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명확하고 잘 짜여진 세계적 전도 구조를 갖춘 완전히 발달된 기구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영적 건강, 지도 모델, 그리고 생산적인 상호 의존성을 갖는 작은 그룹들로 나뉘어 진 구조로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예를 인용하고자 2006년 1월 30일에 ‘Hyper-Autonomy(지나친자치주의)’라는 보조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이 단지 하나의 신조의 묶음이 아닌 주로 ‘겸손’과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난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고전 4:14-21, 고후 13:1-3),

회중 상호간의 문제들에 답을 주거나(행 15:1-5), 보편적인 필요들을 위해 협력(롬 15:25-29) 하기 위해서, 당시 회중들과 존경받는 인도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강한 유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결주의’(connectionalism) 또는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이라고 불립니다.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지만, 너무 급격한 반응이 억압하는 동안 우리의 연결이 많이 상실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손실은 크게 실망스러운 폭로로 말미암은 인간본성의 충돌, 왜곡된 정보 그리고 오랜 기간 한 기구의 강한 가부장적 권위 속에 억눌려왔던 사람들의 긴장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야 어떻게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 자신의 독립을 교만하게 선언하는 인도자들이 그들이 인도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시 그 인도자들로부터 그들 자신의 독립을 교만하게 선언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갈5:13)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다시 확실하게 재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혜를 추구하되 자신들의 선택과 의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성숙하게 전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 **목적 을 명확하게 하기**

미션과 교회의 목적에 대한 보편적인 혼란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경험이나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션과 목적 사이에 구분을 짓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한편, 복음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나 영적인 성장과 목양등등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런 재평가의 시기에 우리 중 어떤 교회들은 현대 교회의 이런 경향들 즉 대중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본주의적 문화의 요청 속에 빠져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과 미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점점 비영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암시들을 깨달지도 못한 채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을 통해 정의해본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세상에서의 사명은 공동믿음선언을 통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편, 미션은 예수님의 복음의 다양한 측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우선순위를 늘 돌아보는 것은 아주 특별히 중요합니다. (골 2:6-8)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최고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분 안에서 산”다면(골 2:6),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골 1:6)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 **교회안의 지역별 협력관계**

(고전 12:27-28)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28]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지체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이며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음은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개념을 ‘가족’과 ‘몸’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단지 제자 개개인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몸으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예수님의 몸은 기본적인 협동과 기능의 면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가족’과 ‘몸’이라는 성경적 비유가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볼 때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원칙과 명령들은 **회중간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을 침해하기도 했던 위계질서와 권위주의가 이 진리를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진리가 과거의 구조에 대한 반발심-즉,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치고 고립되어 버리는 것- 때문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 양 극단적 반응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 즉 한 교회가 객관적 통찰력이나 조언을 구해야 하는 일반적 필요를 그들 외부로부터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삶과 우리 회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회중안의 관계에서나 회중 사이에서도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고전 12-13, 엡 4, 히 3:12-13)

마치 건강한 가족의 경우처럼 각 회중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양육받고, 성숙해져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족의 경우처럼 어떤 회중도 아무리 성숙하고 오래되었다 할 지라도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는 교만한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고전 12:21) 반대로, 연합된 감정과 지체의 은사들은 특히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정신으로 **각 회중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성숙도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결코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헌신해야 합니다.

1. 교회의 인도자와 인도자 그룹(집사, 목사, 장로 등)은 성경적이고 성숙한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하고도 규칙적으로 다른 교회의 인도자들과 연락하는 데에 동의한다. 속한 지역 그룹의 리더십과 만나든, 관계가 있거나 교제가 있어온 교회의 리더십과 만나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히 3:31),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더 예리해지게 하며(잠언 27:17), 사랑과 선한 행동이 풍성해지도록 격려(히 10:24)한다. 많은 지역 교회 가족들은 이미 과거 몇 년 간의 혼란 속에서 회복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해왔다. 더 나아가 각 회중은 그들 지역에서 혹은 관계의 테두리 안에 있는 다른 회중들과 함께 행사를 하며 타 인도자들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위해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권면하는데 동의한다.
2. 몇몇 사람들은 지역적인 규모의 토의를 뛰어넘는 더 큰 규모의 토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보낼 것이다. (고후 8:23) 우리가 매년 해 온 리더십 컨퍼런스와 미션 지원 토론회 같은 것처럼 말이다.

**여러 개의 지역 그룹으로 리더십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단지 한 교회로 이루어져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엡 4:2)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엡 4:3)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 하라”라는 구절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다른 교회의 리더십과 함께 상호 제자훈련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리더십이 이미 예전부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의 리더십은 미국 내 다른 리전의 특정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 그룹의 한 부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적극 권합니다. 각각의 교회 리더십은 자신들을 격려해주는 관계에 기인하여 어떤 지역 그룹에 속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교회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그룹에 속하려고 하겠지만, 다른 지역 그룹과 연결되어야 할 명백한 필요/이유가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조사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상호적으로 도움을 받는 29개의 교회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차트 혹은 잠재적인 지리학적 리전은 바로 아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부디 참고의 수준 그 이상으로 본 자료를 보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한 교회가 어떤 리전의 그룹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암시하거나 지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지역,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의 수,	제자의 수
남서 미국/ 대한민국/ 몽골/ 하와이	23	10413
멕시코/ 중미	33	8054
필리핀/ 록키 산맥	20	5594
동남아시아	35	5460
인도	51	4931
남동 미국	16	4518
남미	26	4484
남 미국	13	4477
뉴욕	7	4589
유크라니아/ 중부 유럽	19	4323
서 러시아/ 카피카스 산맥/ 중부 아시아	14	4030
미연방	23	3900
프랑스 서 아프리카	20	3478
뉴잉글랜드 미국	9	3377

서 아프리카	16	3327
중국	20	3298
중서부 미국	8	3199
남 아프리카	18	2857
카리브 지역	19	2466
텍사스 미국	12	2179
유럽 대륙	31	1955
동 러시아/ 우랄 산맥	14	1742
북서 미국/ 서 캐나다	15	1725
동 아프리카	8	1644
중부 동 캐나다	10	1357
영국	21	1245
중심부 미국	12	1220
호주	12	815
중동 지방	16	443
기타(미공개 지역)	5	2279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이 운동이 전진할 수 있도록 현재 이 29 개의 지역 제자훈련관계 그룹에 속해 있기를 권장합니다. 이 제안서에 교회 인도자가 합의한다는 것은 이들 그룹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룹들 중 몇몇 그룹은 이미 1년에 한 두 번씩 만나는 것이 유익함을 발견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교회 인도자들이 이 지역 그룹 내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모여서 서로를 일깨우고, 인도자들을 훈련하고 도우며,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의 이 그룹 내에 변화가 일어나고, 몇몇 그룹은 다른 그룹과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계속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국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총 지역 그룹의 숫자를 현재의 29개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그룹들은 이 29개의 큰 리전과 협동하여 대표자를 지명하게 될 것입니다.

### 역동적인 인도자 팀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도자의 역할과 직책을 연구하고 정리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문제들을 여과해내면서도 부주의로 인해 기본적인 지도력이 무기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인도자 모델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분명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인도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숙도나 수적인 차원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모델이나 역할관계 그리고 직위에 대해 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성원들과 인도자들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을 적절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롬 12:3-8).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한다면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배열하거나 많은 장로, 전도자, 집사, 교사들과 다른 인도자들을 나열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건강하고 승리하는 행진으로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면서, 또 우리의 교제가 성장해가면서 이 제안서의 요소들은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시는 바에 따라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문화의 변화는 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효과적인 인도자 팀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힘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 자료 참조, '효과적인 인도자')

### III. 교회 강화

(엡 4:11-13) 『[11]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12]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다른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의 뚜렷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14:22, 15:32, 15:41, 16:5, 18:23) 사도들만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는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필요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의 선교 노력들을 더욱더 체계적/효과적인 것으로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 대학부와 청년부 미니스트리를 소생시키는 것이 우리 교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지역의 대표자들**

우리 교회들을 강화시키는데 누가 또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다수의 우리 교회들은 존경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성품, 도덕적인 권위와 달란트로 추천과 칭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5:22의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와 바나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도 등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직위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주로 지역 교회의 자연적인 추천으로 인해 그 위치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국제 교회들의 가족 내에서 관련된 일들을 누가 조정하여 대표할 것입니까? 큰 가족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가족 모임 등을 계획하듯이, 우리



교회들의 대표자 또한 한정된 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는 일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자들은 아마도 1년에 한번씩 만나서 우리 교제의 공통된 필요를 돕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제안서 (Unity Proposal) 과정에서 그런 필요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다음 목록은 그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선교 사업과 자금 제공

전도자(목사), 장로, 선교사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화합과 문제/충돌 해결

인터넷 의사소통 기준

상처를 받았거나 약한 교회들을 위한 조언

행정사무 기준

목사 없는 교회 또는 교회 없는 목사 도와주기

청소년, 대학부, 청년부를 위한 더 많은 노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재앙 구제, 호프 월드 와이드 또는 다른 구제 단체들과의 협력

우리 교제의 명칭 변화의 가능성

교회의 훈련을 위한 더 깊은 연구

이러한 사항들은 자질있고 추천 받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대부분 하나됨을 위한 제안서 (Unity Proposal) 그룹의 범위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커서 대부분 다룰 수 없는 목록들입니다.

지역을 초월한 사항에 대해 의논할 필요가 생길 시에는 국제 회의를 주최하여 그룹 수의 다수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가 소집될 때에는 각 지역 그룹에서 두 명의 대표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구성원 그룹은 각 1000 명 단위마다 추가적으로 한 명의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즉 87명의 국제 대표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들 중 3분의 2는 미국 밖의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 **선교 조정 회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무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후한 헌금을 한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후 9:13)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의 짧은 역사에서 가장 격려를 주는 면 중의 하나는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헌신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겪은 고난과 과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대다수가 선교의 중심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유지했으며, 진행 중인 세계 전도 복음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현재, 선교를 위한 교회와 그것을 지원해주는 교회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교류뿐 만 아니라 8개의 선교 단체의 헌신적인 운용으로 160개국 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을 받는 교회가 상호 이해와 강한 유대관계를 가져야하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매년 정기적인 국제 리더쉽(ILC) 회의를 개최할 때, 그 회의 전 하루를 미션에 대한 - 귀중한 보고들을 나눔(좋은 소식과 고민들), 성경적인 가르침과 협력적 교제를 위해 헌신하는 날로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해주는 교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전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놀랍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IV. 끝맺으면서 제시하고 싶은 비전**

(히 12:11)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교회라는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러한 시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에 대해 대단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한다면, 영광스러운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특수한 처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실했고 변함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리 인도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으며, 여전히 우리 사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 동안 많은 신임 인도자들이 종전 인도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비난을 받고 몸소 막아 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를 줄지도 모를 때라 할지라도 즉각적이고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고백할 것이 많기도 했습니다. 영웅적인 선교사로 이름났던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금과 기반이 거의 전무한 채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장로직을 맡은 제자들과 뒷받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많은 인도자들은, 이러한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교회의 재정비와 갑작스레 일어난 변화들은 우리 교회의 다른 면에서의 거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교회의 품성과 제자들의 마음이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격심한 변동의 시간동안,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의견을 제공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칭찬을 받을 만 하고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변동에 의해 영동하게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 한번 우리의 동료의식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최근에 비로소 폭풍과 같던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폭풍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쓰나미와 허리케인을 미리 알리고 피해를 줄이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처럼, 앞으로 전진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단결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명 한 명이 유일하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교회에 모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 더욱 깊이 회개해야 할 사항

이와 같은 '하나됨을 위한 제안'은 단지 우리 교회들이나 제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만 깊어지게 하려는 제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지속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인지하자는 것이 또한 이러한 제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분명한 방법들 중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눅 19:1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의 열정과 사명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 DisciplesToday.net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멤버의 수를 봅시다. 우리 교회들은 거의 10년 동안 점점 더 적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난 7, 8년 동안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에 대해 외치고 증명하고 전하는 일 또한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성숙해지는 것뿐 아니라 선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1세기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수적인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이 곧 교회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지역에서 동정심 많은 마음을 개발하고 사랑하도록 유도하고 준비하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숫자와 통계적인 측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적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지역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주요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도하기를 사실상 그만 두었다는 사실을 용기있게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다수는 위험하게도 선교에 있어서 거의 열의가 없고, 많이 정체되어 있으며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성장하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운동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제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성경적인 본보기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교회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고 도와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와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한 형제는 우리에게 대해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중심이 되었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되어버렸다!” 우리가 처음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계 2:5)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감사와 은혜, 용서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모든 쓰라림과 악의를 없애도록 이 순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왔던 것만큼, 우리 역시 마음을 넓혀 아낌없이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어느 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거 3년 동안 거대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신속하게 회개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헌신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 협동과 진보를 위해 2006년 3월 29일 수요일을 전세계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서 제안합니다. 회개하고, “사랑으로 서로 너그러이 대하는” (엡 4:2) 태도 없이는 결코 협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쁨과 약속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행 3:19)

(롬 15:5-6)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6]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바울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협동을 허락해 주셨음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 안에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그가 완전히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늘 아낌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았음을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겸손하고 솔직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영적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세상에 손을 뻗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 제안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질의와 응답’을 참고하기 바랍니다.